

광주 백화점 '허리띠' 바짝 진다

환율 급등·공정위 수수료 압박에 불경기까지

광주신세계 '슬림 워크'·롯데도 긴축경영 체제

광주지역 백화점 업계가 '허리띠' 조이기에 나섰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는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단 수수료 인하 압박에 비용절감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까지 활황이었던 매출이 여름을 지나 급감한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

6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올해 초부터 실시한 '슬림워크'(slim work) 체제를 지속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최대한 경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매년 두자릿수를 넘나들던 매출 신장세가 최근 한자릿수로 푹 떨어졌고, 당분간은 불경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자체적 전망이 나와서다.

업무효율화와 비용절감을 위해 지출이 가장 큰 마케팅 비용부터 줄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신문 등에 삽입되던 광고전단을 없앴고, 행사나 주말 공연 등을 줄였다. 농산물과 축산물 부서를 통합하고,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회의 줄이기와 함께 각 부서마다 에너지 담당자를 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접대성 경비도 최대한 자제하는 등 당분간 긴축경영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하반기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내외적 악재로 인해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각종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 긴축경영 체제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장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서면 보고를 최소화하고 사내 메신저를 이용한 보고체계를 세웠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해 유류전력 소등, 전등 청소를 통한 조도향상, 점·소등 30분 줄이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의 압박은 백화점 업계 연말 영업이익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해 영업이익의 일정부분을 내놓아야 할 경우 매년 연말 지급되는 임직원 성과급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도 있어 긴축경영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가을 정기세일 매출 신장률이 일주일만 지난 현재 지난해에 비해 1%대 성장에 그치고 있다"면서 "세일이 끝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판매 부진이 계속되면 연말 성과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꽃그림 넥타이 어때요?” 6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카운테스마라 넥타이 매장에서 아트디자이너 박운정 작가가 직접 '핸드프린팅'한 꽃그림의 넥타이를 선보였다. <광주신세계 제공>

전남도 '금고은행' 31일까지 공개모집

전남도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도의 세입·세출 예산자금을 관리할 '금고은행'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가 이날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고 수는 2개로 하고 지정 방법은 일반공개경쟁, 약정기간은 3년, 신청자격은 은행법에 인가받은 금융기관 중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등이다.

금고 지정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고지정심의회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지정한다.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오는 14일 열리는 신청 요청 사전설명회에 참석해 설명회에서 배부하는 '금고지정 제안서'를 작성,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번 금고은행 지정은 금고 약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전남도 금고은행은 현재 제1금고로 지정된 농협이 도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4조7634억원을, 제2금고인 광주은행이 기타 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6종의 각종 기금 6567억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오는 12월말 약정기간이 끝난다.

/정필수기자 bungy@



진아건설, 20평형대 포함

진아건설이 7일부터 광주시 광산구 수완리지구 '수완리채' 아파트 403가구를 분양한다. <조감도>

수완리채는 지하 1층, 지상 15층 7개 동에 전용면적 68㎡(28평) 120가구, 84㎡(33평) A타입 120가구, B타입 148가구, C타입 15가구 등 총 403가구로 구성된다.

이 아파트는 명품신도시 수완리구에 공급되는 마지막 20평형대가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단지는 모두 정남향이며, 용적률이 150%로 쾌적하다. 또 지상에는 차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하고 주차공간을 기존 단지보다 넓게 설계해 편하고 안전하다.

내부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4베 이 와이드 설계를 도입해 채광·전망·통풍성을 극대화했다. 아파트 층고를 10cm 높여 실내 공간을 넓히고 개방감을 줬다. 주민 편의시설로는 골프 연습장과 피트니스클럽, 주민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수완리채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입지조건도 뛰어나다. 수완리구 중심상권과 가깝고 운남·신가지구와 인접해 최상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2월 입주예정인 것으로 최근 분양된 아파트 중 입주시기가 빠르다. 모델하우스는 서구 광천동 신세계 이마트 옆에 마련됐으며, 7일 오전 10시 문을 연다. 청약 일정은 오는 11~14일까지다. 분양 문의 1566-2105.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힐라 스포트' 여천점 9월 매출 2억 돌파

아외 스포츠 브랜드 '힐라'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유독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힐라 코리아는 '힐라 스포트' 여수 여천점의 9월 한 달 매출이 2억원을 넘겼다고 6일 밝혔다.

또 롯데백화점 분점과 광주 상무점, 순천 연향점, 남원점, 신검단점, 제주 칠성로점, 경기 신천점 등 다수

매장이 한 달 매출 1억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힐라 스포트 관계자는 "1~2억원 이상의 높은 매출을 기록한 매장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고무적"이라며 "고기능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과감한 디자인을 접목해 차별화된 제품으로 젊은 소비자를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